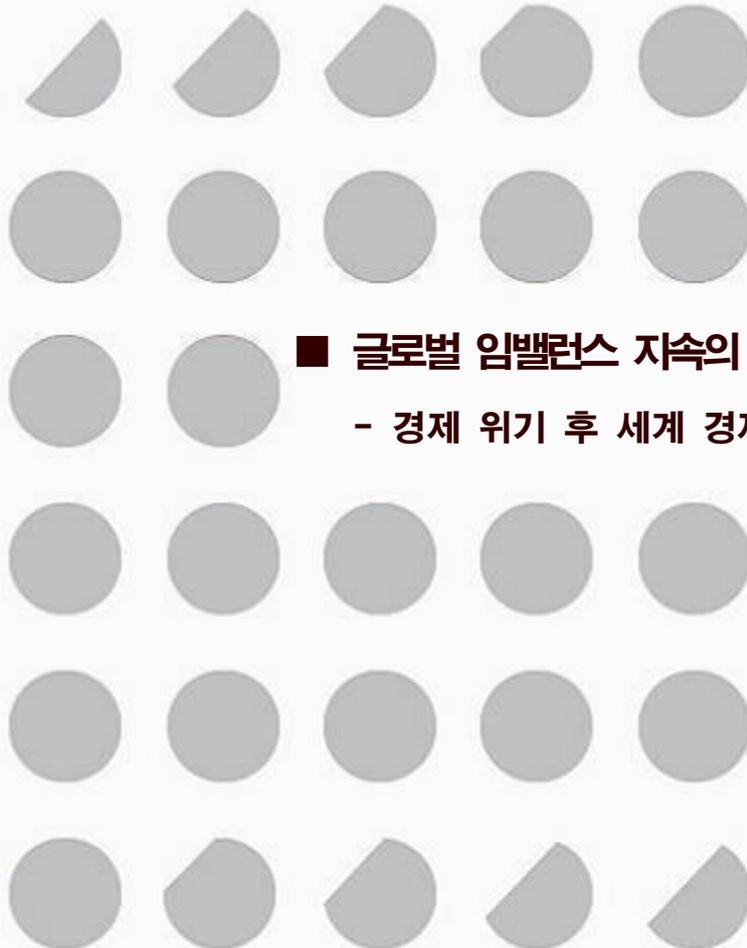


經濟週評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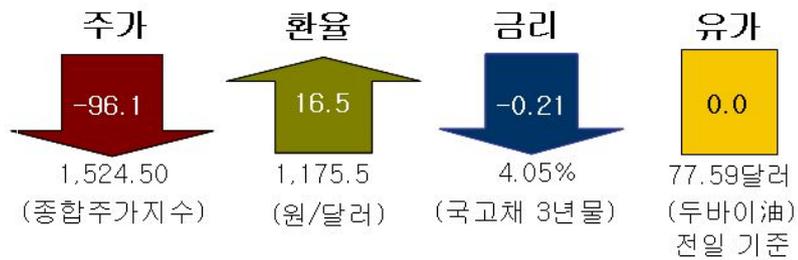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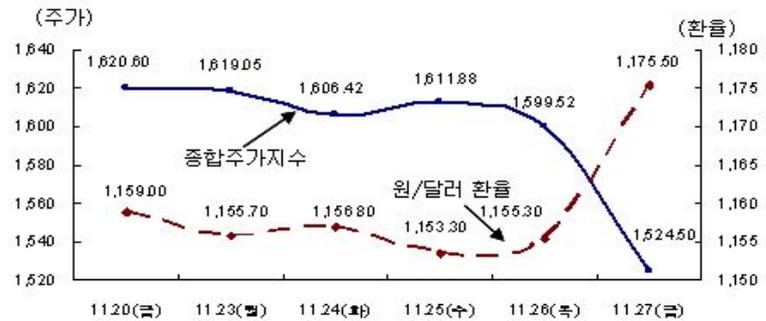


■ 글로벌 임밸런스 지속의 파급 영향

- 경제 위기 후 세계 경제 5대 변화 전망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20~11.27)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글로벌 임밸런스 지속의 파급 영향	
- 경제 위기 후 세계 경제 5대 변화 전망	1
주요 국내외 경제 지표	17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실 물 경 제 실 : 임 희 정 연 구 위 원 (3669-4031, limhj9@hri.co.kr)
 : 김 민 정 연 구 위 원 (3669-4457, kimmj@hri.co.kr)
 : 정 유 훈 선 임 연 구 원 (3669-4014, youhun@hri.co.kr)

Executive Summary

□ 글로벌 임밸런스 지속의 파급 영향

- 경제 위기 후 세계 경제 5대 변화 전망

(글로벌 임밸런스의 현황 및 배경) 글로벌 임밸런스(imbalance, 불균형)는 주요국 경제의 성과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남을 뜻한다. 이를 무역측면에서 보면 경상수지 흑자 혹은 적자를 지속하는 국가로 나누어지는 글로벌 경상수지의 임밸런스를 의미한다. 자금흐름 측면에서는 자본유입 혹은 자본유출 지속하는 국가로 나누어지는 자본수지 임밸런스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미국의 적자 지속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때문이다. 중국은 2001년에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1.31%에서 2008년 9.85%로 증가하였다. 반면 미국은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2001년 3.87%에서 2008년 4.87%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도 글로벌 임밸런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향후 글로벌 임밸런스에 대한 조정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임밸런스의 배경은 성장전략 및 저축과 투자의 갭으로 인한 경제구조 측면과 글로벌 금융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성장전략에 따른 경제구조 차이다.** 중국 등 신흥아시아 국가의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국통화 저평가를 통한 수출증대는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환보유고 증대로 이어졌다. 이는 글로벌 임밸런스 형성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저축과 투자 갭에 따른 경제구조 차이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중국 등 아시아 지역 경제는 투자 축소 및 저축 증대를 통해 글로벌 저축 과잉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과잉 저축은 미국의 투자 재원으로 유입됨으로써 글로벌 임밸런스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또한 해외 저축에 의존한 미국 소비 구조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미국 경제의 총지출의 증가는 재정적자 지속 및 가계 저축 감소로 이어졌다. **셋째, 글로벌 금융 측면이다.** 미국 금융 자산에 대한 선호 지속이다. 중국 등 신흥아시아 국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이들 국가의 여유 투자 자금은 높은 유동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미국 정부채권에 대한 매입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자금흐름은 미국 경상수지 적자 및 글로벌 임밸런스 지속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글로벌 임밸런스의 파급 영향) 글로벌 임밸런스에 의존한 세계 경제 성장 모델은 조정과정을 통한 새로운 모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영향은 성장, 금융, 자금흐름, 통상, 세계 경제 체제의 측면에서 나타날 것이다.

첫째, (성장) 세계 경제 수요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負의 자산효과, 실업률 증가로 인한 소득감소 등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다. 미국 민간 소비 부진으로 인한 수요부족으로 세계 경제는 성장률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 부족을 메울 중국의 대체수요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세계 GDP대비 4.8%이나 미국 민간소비는 16.6%에 달해 간격이 크다. 미국의 수요 위축과 중국의 대체수요 부족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유효 수요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유효 수요 둔화는 투자 감소로 인한 자본 스톱 하락 및 노동투입 감소 등 공급 측면을 약화시켜 잠재성장률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2009년~2010년 기간 중 잠재성장률은 1.4%, 유럽은 0.9%, OECD평균 1.4%로 이전 기간(2006~2008년)보다 각각 0.9%p, 0.8%p, 0.7%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금융)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기축통화 지위가 약화될 것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 하락, 미국 정부 채권 수요 감소, 미국 금융시스템 불안 등은 외국 투자자의 달러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이어졌다. 또한 대체통화로서 IMF의 특별인출권, 유로화와 달러 교환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등 다양한 대체통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체통화를 이용한 외환보유고 구성 다양화 요구 증대 등으로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920년대의 파운드-달러 이중체제(pound-dollar duopoly)와 같은 달러-유로의 이중 기축통화 체제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경제위상) 주요 국가 및 지역 간의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중국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은 상승세이고 반면 미국의 위상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세계 GDP 대비 비중은 2000년 3.7%에서 2008년 7.1%로 증가하였다. 반면, 미국의 비중은 2000년 31.0%에서 2008년 23.7%로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신흥개도국 및 중동 지역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북미자유무역협정 지역의 위상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임밸런스에 의존한 세계 경제 성장은 경상수지 흑자 국가 혹은 이러한 국가를

포함한 지역의 경제 위상 증대로 이어졌고, 경상수지 흑자 국가 혹은 이들 국가를 포함한 지역의 위상 하락으로 이어졌다.

넷째, (통상) 미국 경제는 자국 산업보호와 수출증대를 위해 통상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소비자는 금융권 차입축소(deleveraging), 가계부채 조정을 위한 높은 수준의 저축 필요성 등으로 인해 소비 수준을 줄이고 있다. 미국은 2009년 2/4 분기에 가계 저축률이 4.9%로 2008년 3/4분기 2.2% 대비 2.7%나 상승하였다. 가계 건전성제고 등을 위해 개인 수준에서는 합리적이나 경제 전체적으로는 소득 감소를 초래하여 경기 침체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경제는 소비 위주 성장에서 수출 주도 성장으로 전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 산업보호와 수출증대를 위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자국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수출증대를 위해 달러가치 하락이 필요할 것이다. 이로 인해 보호무역주의 경향 확대 및 글로벌 환율변동성 증대로 무역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세계 경제 체제) 세계 현안 문제를 다룰 새로운 경제 체제가 성립되어 나갈 것이다. 글로벌 임밸런스 등 현안 문제는 G7이 아닌 G20체제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 클 것으로 판단된다. G7 국가의 GDP는 세계GDP 대비 비중은 2001년 65.6%에서 2008년 53.2%로 하락하였다. 반면 G20 국가로 확대하여 보면 세계GDP 비중이 2001년 86.6%에서 2008년 83.2%로 2000년대 들어서는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G20 회원 국가에 주요 경상수지 흑자 국가(높은 수준의 외환보유고)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글로벌 임밸런스 문제 해결을 위해 적합한 경제 체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IMF, WTO를 중심으로 한 체제의 한계점이 노출되어 G20주도 체제로의 발전가능성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응과제) 글로벌 임밸런스 조정으로 인한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출 주도의 성장 모델에서 내수 산업의 비중 확대를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둘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중국과 일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동북아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국내 경제도 수출 위축, 투자 감소 등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달러 약세로 인한 환율 하락으로 인한 문제점을 완화하도록, 정부의 과도한 하락 방지를 위한 미세 조정, 비가격 경쟁력 제고, 환변동보험제도 활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글로벌 임밸런스 지속의 파급 영향 >

글로벌 임밸런스 현황 및 배경	
글로벌 임밸런스의 정의 및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임밸런스는 주요국 경제의 성과의 현격한 차이를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좁은 의미에서는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미국의 적자 지속을 의미 - 글로벌 임밸런스의 배경은 성장전략, 저축과 투자의 갭으로 인한 경제구조 차이와 미국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로 인한 자금 흐름임

글로벌 임밸런스의 파급 영향		
성장	세계 경제 수요 및 빠른 경기 회복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수요 부족을 메울 중국의 대체수요 규모 부족 · 미국 민간소비는 對세계GDP 16.6%, 중국의 대체수요는 4.8%
금융	달러신뢰하락으로 기축통화 지위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 하락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 정부 채권 수요 감소, 금융시스템 불안 등은 달러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짐
경제 위상	국가 및 지역의 경제 위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경제 위상 증가세인 반면 미국의 위상은 하락세 · 신흥개도국 및 중동 지역의 위상 증대, 북미자유무역협정 지역의 위상 하락
통상	미국發 통상 압력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자국 산업보호와 수출증대를 위해 통상 압력 증대 · 자국 산업보호와 수출증대를 위해 관세 인상 혹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보호무역 조치 증대
경제 체제	G20 등 새로운 체제 형성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20 등 새로운 체제 형성 가능성이 고조 · 글로벌 임밸런스 등 현안 문제의 해결 가능성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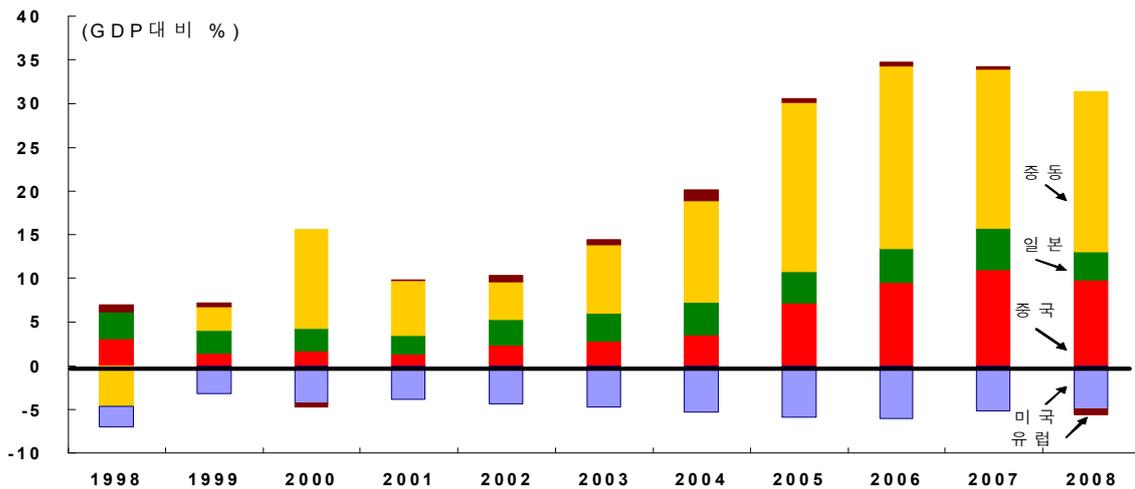
대응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임밸런스 조정으로 인한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수출주도의 성장 모델에서 내수 산업의 비중 확대 방안 모색 · 둘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중국 등 역할 증대에 대비하여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 · 셋째,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비하여 성장률 제고 방안 지속 추진 · 넷째, 환율 변동성 축소를 위해 외환 거래 확충 등 외환시장 안정화

I. 글로벌 임밸런스¹⁾의 현황과 배경

1) 현황

-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 세계 경제 성장 모델로 작용하였던 글로벌 임밸런스는 2006년 이후 규모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임밸런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글로벌 임밸런스의 정의 : 주요국 경제성장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남을 의미
 - 무역측면에서는 보면 경상수지 적자와 흑자 국가 그룹으로 뚜렷하게 나누어지는 1990년 후반부터의 세계 경제의 패턴을 의미²⁾
 - 좁은 의미에서는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지속을 의미. 그 이유는 두 국가가 세계 경제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임
 - 경상수지 임밸런스 지속 : 세계 경제는 경상수지 임밸런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 세계 경제는 임밸런스에 의존하는 성장 모델에서 재균형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 경상수지 흑자 국가 : 중국 등 대표적인 수출주도 국가와 원유 수출국가인 중동지역은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늘림으로써 임밸런스 심화에 기여
 - 경상수지 적자 국가 : 세계 소비 시장의 역할을 했던 미국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 최근 5년간 GDP의 5% 내외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

< 주요국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 추이 >



자료 : Reuters;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9.

- 1) 글로벌 임밸런스(imbalance)는 글로벌 불균형으로 표현할 수도 있음.
- 2)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중앙 및 동유럽 등임. 반면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일본, 독일, 동아시아국가, 그리고 원유 수출국 등이 해당.

2) 배경

○ (성장 전략) 중국 등 신흥아시아 국가의 수출주도 성장전략으로 인한 자국통화 저평가를 통한 수출증대는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환보유고 증대로 이어져 글로벌 일밸런스의 주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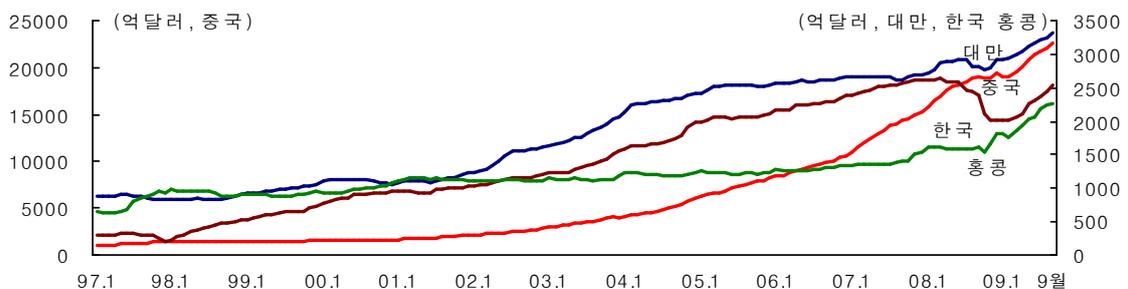
- 수출주도 및 내수위주 성장 전략 : 중국 등 수출주도 성장 국가는 경상수지 흑자, 미국 등 내수 위주 국가는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함으로써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으로 이어짐
- 중국 수출의 **GDP대비 비중 추이** : 중국은 대표적인 수출주도 성장전략 국가로 1998년 수출의 GDP비중이 18.0%를 기록하였으나 2006년에는 36.5%까지 증가한 후 2008년에도 33.0%로 높은 수준을 유지
- 미국의 민간소비의 **GDP 대비 비중 추이** : 미국은 민간소비의 GDP대비 비중은 1998년 67.3%에서 2008년에는 70.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GDP대비로도 20%내외의 높은 수준을 기록
- 신흥아시아 국가 통화 중 중국 위안/달러 환율은 1998년 1월에서 2005년 6월 기간 중 8.28, 2008년 7월 이후 2009년 9월 현재 6.83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 수출주도 성장 국가의 외환보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중국은 1998년 말 1,450억 달러에서 2009년 8월말 2조 2,108억 달러로 1,425%, 대만은 903억 달러에서 3,254억 달러로 260%, 한국은 520억 달러에서 2,455억 달러로 520% 증가

< 중국 수출 및 미국 소비의 GDP 대비 비중 추이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중국	수출	18.0 (0.6)	18.0 (0.6)	20.8 (0.8)	20.1 (0.8)	22.4 (1.0)	26.7 (1.2)	30.7 (1.4)	34.1 (1.7)	36.5 (2.0)	36.0 (2.2)	33.0 (2.3)
	민간 소비	67.3 (19.7)	67.8 (20.3)	68.6 (21.3)	69.5 (22.4)	69.9 (22.4)	70.0 (20.9)	69.8 (19.7)	69.8 (19.4)	69.6 (19.0)	69.8 (17.8)	70.1 (16.6)

자료 : Reuters. 주 : () 안은 대 세계 GDP 대비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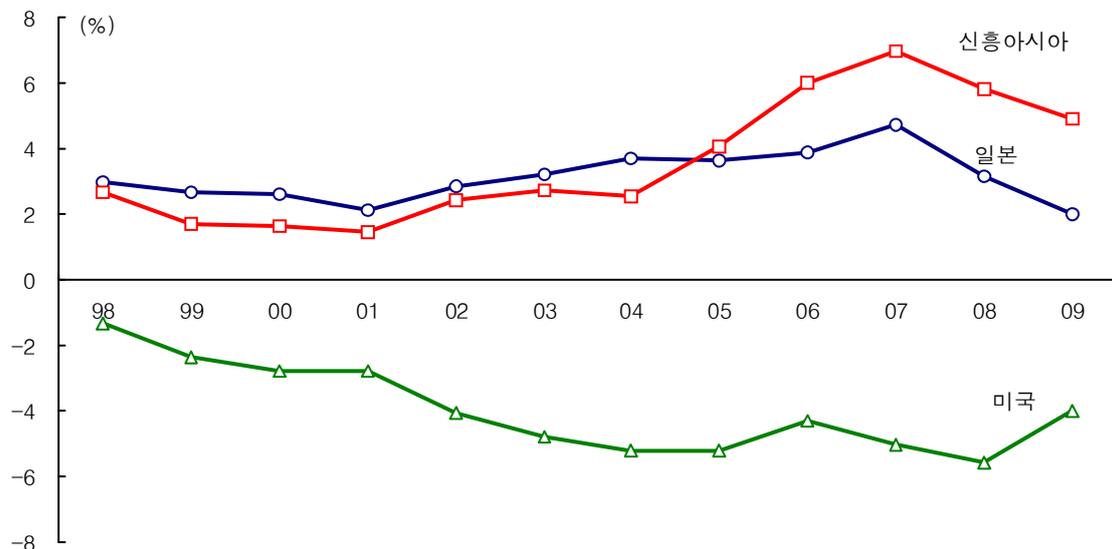
< 주요국 외환보유고 추이 >



자료 : Reuters.

- (투자과 저축 갭)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투자 축소 및 저축 증대로 인한 글로벌 저축 과잉은 글로벌 임밸런스에 영향을 미침
 - 총저축률이 투자를 하회하는 국가 : 미국은 총저축률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회하고 있어 투자 부족분을 해외 저축에 의존
 - 미국 : 2009년 총저축률 전망치도 GDP대비 11.0%로 투자의 15.0%를 4%p나 하회함으로써 외국 저축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여 미국의 경상수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큼
 - 총저축률이 투자를 하회하는 국가 : 중국 등 신흥아시아 국가는 총저축률이 요구되는 투자 수준보다 높은 관계로 여유분을 미국 등에 투자함으로써 경상수지 불균형에 영향을 미침
 - 신흥아시아³⁾ : 중국 등 신흥아시아 국가는 총저축률이 요구되는 투자 수준보다 크고 클 것으로 전망. 총저축률은 2009년에 GDP대비 47.1%로 투자 수준인 42.1%를 5.1%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일본 : 총저축률이 투자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 총저축률이 2008년 GDP대비 26.6%에서 2009년 23.2%로 3.4%p나 하락하였으나 투자규모도 동기간 중 23.5%에서 21.2%로 하락하여 총저축이 투자를 각각 3.1%p, 2.2%p 상회

< 주요국 총저축과 투자 갭 추이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9.

주 : '총저축과 투자 갭'은 총저축에서 투자를 뺀 수치를 의미함.

3) 신흥아시아는 중국, 인도, 아세안-5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를 의미함.

- 해외저축에 의존한 미국 소비구조 : 부채 의존적 공공 지출 및 민간 소비 구조는 재정적자 지속 및 가계저축률 하락으로 이어져 미국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글로벌 임밸런스의 원인으로 작용
 - 미국 재정수지는 2002년에 GDP대비 1.5% 수준의 적자로 전환된 후 2007년에 1.2%까지 낮아졌으나 2008년에는 다시 3.2% 수준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공공지출이 증대. 이러한 적자 지속은 경상수지 적자에 영향을 미침
 - 가계저축률은 2003년 3.5%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1.4%까지 하락하였다가 2008년에는 2.7%까지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차입에 의존한 소비 구조를 유도

< 미국 재정수지 및 가계저축률 추이 >

(단위 : 억 달러,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재정수지	693 (0.8)	1,256 (1.4)	2,362 (2.4)	1,282 (1.3)	-1,578 (-1.5)	-3,776 (-3.4)	-4,127 (-3.5)	-3,183 (-2.6)	-2,482 (-1.9)	-1,607 (-1.2)	-4,590 (-3.2)
가계저축률	5.3	3.1	2.9	2.7	3.5	3.5	3.4	1.4	2.4	1.7	2.7

자료 : Reuters.

주 : 1) ()안은 재정수지의 GDP대비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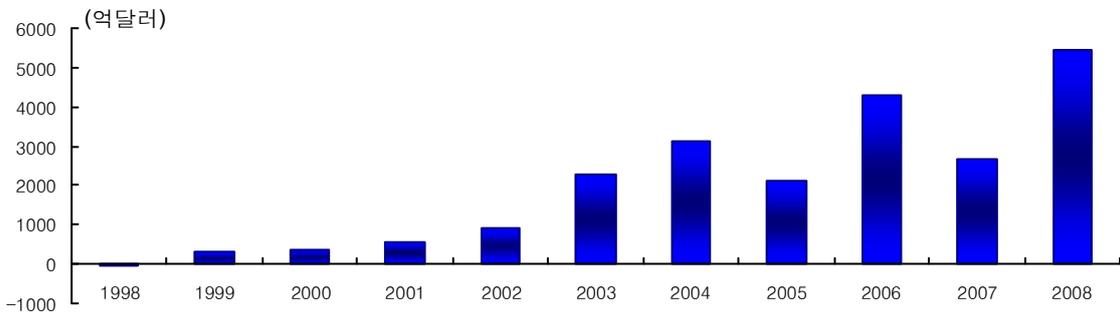
2) 가계저축률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저축의 비율을 의미함.

- 글로벌 수요 구조(structure of global demand) : 미국의 소비 수요는 세계 경제 성장의 주요인이고 중국 등 아시아 수출주도 성장 국가들에게는 주요 시장이었음
 - 미국 민간 소비는 2008년에 세계 GDP의 16.6%를 기록. 금융 위기 이전에 민간소비는 3%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에 -0.2%로 급락
 - 부채에 의존하는 미국 소비는 수출 주도 아시아 국가의 높은 저축률에 의존
 -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높은 수준의 미국 개인 저축률과 내수 위축, 수출 비중 증가세 등은 미국 소비자가 더 이상 세계 경제 성장의 주동력으로 작용할 수 없음을 의미
 - 건전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미국 소비자의 가계 건전성을 회복해야 함

○ (미국 자산 선호) 미국 금융 자산의 고유동성 및 낮은 위험성 등 특징으로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 지속

- 중국 등 신흥아시아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금은 높은 유동성 및 안정성을 보장되는 미국 정부채권에 대한 매입으로 이어짐
- 해외투자자의 미국 정부채권 보유는 2008년 5,435억 달러로 2000의 357억 달러에 비해 14배 이상 증가
- 특히 미국 재무성 채권에 투자된 달러표시 자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여 다른 나라 국가들이 미국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효과가 발생함에도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 미국 기준금리는 2001년 초 6.5%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 초까지 2% 내외의 저금리 기간 형성. 2006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5.25%로 금리가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하여 2009년 10월 현재 0.25% 기록
- 중국 경제는 2008년에 9.0%, 중동은 5.4%로 미국 0.4%, 유럽 0.7%, 일본 -0.7% 등 선진국 경제에 비해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

< 해외투자자의 미국 정부 채권 보유 추이 >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BEA.

< 미국 기준금리 및 국채 수익률 추이 >



자료 : Reuters.

II. 글로벌 임밸런스의 파급 영향

○ (성장) 첫째, 세계 수요의 빠른 회복이 힘들어 세계 경기 회복 지연

- 미국 민간 소비 부진으로 세계 수요 부족 : 미국 민간소비 증가율 하락으로 인한 유효 수요 부족은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미국 민간 소비는 2008년 기준으로 세계 GDP의 16.6%를 차지
 - 민간소비의 명목 증가율은 2006년 5.7%, 2007년 5.4%, 2008년 3.1%를 기록하였고 실질 증가율은 2006년 2.9%, 2007년 2.6%, 2008년 -0.2%를 기록.
 - 민간소비 하락의 영향 : 향후 미국 민간소비가 2% 혹은 1.5% 성장에 그친다면 세계 GDP는 위기 이전 5년(2003~2007년) 평균 민간소비 증가율 3.0%를 기준으로 0.17%p 혹은 0.25%p 감소하게 될 것으로 분석됨

< 미국 민간소비 및 세계 GDP 추이 >

(단위 : 억달러,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미 국 민간소비	명목	78,040 (4.9)	82,851 (6.2)	88,190 (6.4)	93,227 (5.7)	98,264 (5.4)	101,299 (3.1)
	실질	82,476 (2.8)	85,327 (3.5)	88,190 (3.4)	90,735 (2.9)	93,139 (2.6)	92,909 (-0.2)
세계 GDP		373,012	419,742	453,855	491,154	552,701	609,175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9.

주 :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 중국의 대체 수요 부족 : 미국 수요 감소 규모를 감당하기에 역부족
 - 중국의 대체수요⁴⁾는 2008년에 2조 8,986억 달러 규모로 세계 GDP대비 4.8%를 차지함으로써 미국 내수 부족분에 비해 월등히 작은 규모⁵⁾

4) 중국의 GDP에서 수출을 뺀 수치를 '중국의 대체수요'로 가정함.

5) 중국 GDP에서 가계 임금 및 기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에 72%에서 2007년 55%로 하락.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중국의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 정도에 불과. 중국 GDP의 35% 수준인 소비를 미국의 내수 부족분을 만회할 대체수요라고 가정하면 수요의 불균형의 정도는 더욱 심해짐(Economist, 2009년 10월 1일). 한편 해외경제정보(한국은행, 2009년10월19일)에 따르면 중국의 민간소비는 2008년 GDP대비 36.8%를 차지.

< 중국 GDP, 수출 추이 >

(단위 : 억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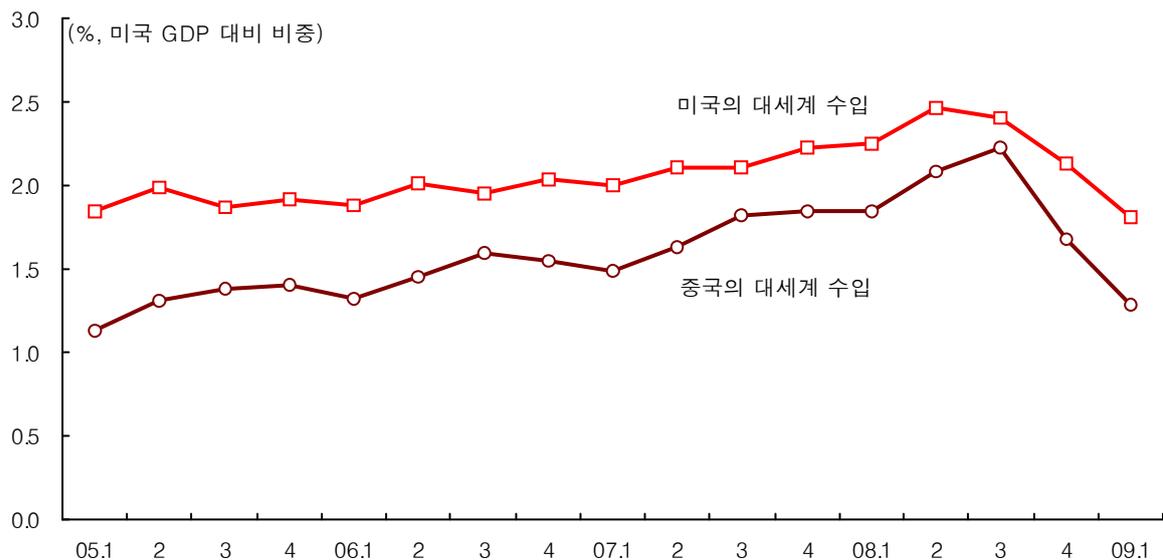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GDP(A)	16,410 (4.4)	19,317 (4.6)	22,358 (4.9)	26,578 (5.4)	33,825 (6.1)	43,275 (7.1)
수출(B)	4,382 (1.2)	5,936 (1.4)	7,623 (1.7)	9,693 (2.0)	12,182 (2.2)	14,289 (2.3)
대체수요(A-B)	12,028 (3.2)	13,380 (3.2)	14,734 (3.2)	16,885 (3.4)	21,643 (3.9)	28,986 (4.8)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9. Reuters. 무역협회.

주 : ()안은 세계 GDP대비 비중.

- 수입 측면에서의 수요 부족 지속 : 미국과 중국의 對의 대세계 수입의 동시 감소하고 있어 세계 경제 시장 수요 부족은 지속될 전망
- 글로벌 수요 구조 : 미국의 소비 수요는 세계 경제 성장의 주요인이고 중국 등 아시아 수출주도 성장 국가들에게는 주요 시장이었음

< 미국과 중국의 對세계 수입 추이 >



자료 : Reuters.

- 세계 공급 약화로 잠재성장률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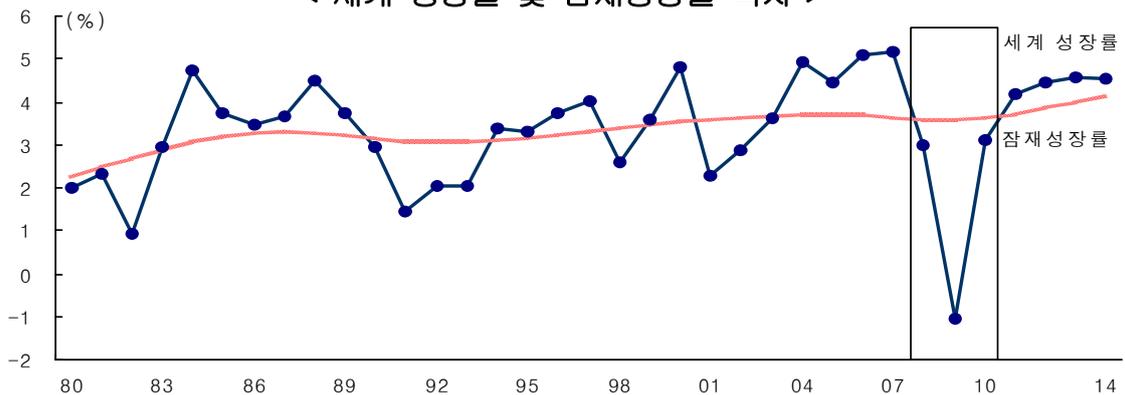
- 미국의 소비 위축 및 경상수지 적자 감소로 인한 글로벌 유효 수요 둔화는 투자 감소로 인한 자본 스톡 하락 및 노동투입 감소 등 공급 측면을 약화시켜 잠재성장률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
-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 : 글로벌 소비 위축으로 인한 투자부진과 더불어 실업률 증가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 등이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⁶⁾
- 글로벌 무역 불균형으로 인한 수요 불균형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세계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4% 내외가를 훨씬 밑도는 성장을 당분간 이어갈 것임
- 주요국 잠재성장률 추이 : OECD(2009년 6월)에 따르면 경제 위기 이후 미국은 2009~2010년 기간 중 1.4%, 일본은 0.6%, 유로는 0.9%로 이전 기간 보다 각각 0.9%p, 0.4%p, 0.8%p 낮은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

< 주요국 잠재성장률 추이 >

	2006~2008년	2009~2010년	2011~2017년
OECD 평균	2.1	1.4	1.7
미 국	2.4	1.5	2.0
일 본	1.0	0.6	0.8
유 로	1.7	0.9	1.3
영 국	2.2	1.3	1.7
독 일	1.2	0.8	1.1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09.

< 세계 성장률 및 잠재성장률 격차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9.

주 : 잠재성장률은 H-P 필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연구소 자체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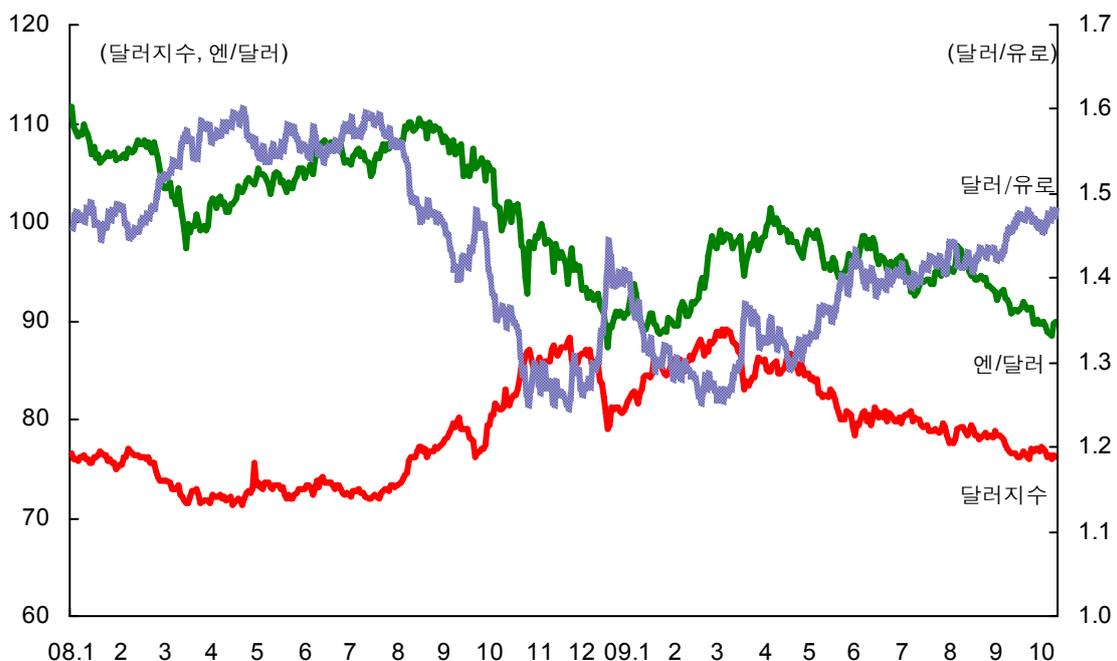
6) 노동시장은 실업률의 히스테리시스(hysteresis) 효과로 인해 당분간 높은 수준의 실업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노동 공급 감소가 전망됨. 실업률의 히스테리시스란 실제 실업률이 균형실업률에 영향을 미쳐 당분간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균형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임.

7) 「Financial Times, October 5, 2009」 참조.

○ (금융) 들쭉,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기축통화 지위 약화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 하락, 미국 정부 채권 수요 감소, 미국 금융시스템 불안 등은 외국 투자자의 달러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짐
- 달러표시 자산 평가 손실 : 달러표시 자산을 보유한 외국 투자자는 달러가치 하락으로 인한 평가 손실을 우려하고 있음
- 미국 정부 채권 수요 감소 : 미국의 낮은 정책금리는 미국 재무성 채권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짐
-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 약화 : 미국 경제 침체, 수출주도의 무역 패턴 변화, 보호주의 경향 등은 안전자산으로써의 달러자산 보유 선호 현상 약화
- 한계시점 도달 가능성 : 세계 기축통화는 안전자산으로 선호됨. 하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특징을 보일 경우 한계시점(tipping point)에 도달하면 외국의 지지는 순식간에 사라질 가능성도 존재

< 달러지수, 유로, 엔화의 환율 변동 추이 >



자료 : US Federal Reserve Bank; 국제금융센터.

- **외환보유 구성 다양화 요구 증대** : 급격한 달러가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체통화를 이용한 외환보유고 구성 다양화 요구 증대
 - **배경** :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급격한 달러가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보유고 구성 다양화 필요
 - **특별인출권⁸⁾** : 특별인출권의 가치는 세계 주요 통화의 바스켓으로 구성됨. 이러한 특별인출권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국 정부는 달러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그들의 자산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음⁹⁾
 - **유로화** : Peter Kenen¹⁰⁾는 다음의 방안을 제안. “유로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이 유통되지 않는 조건으로 새롭게 발행된 유로화를 다른 중앙은행이 보유한 달러를 구입할 수 있는 특별기구(a special facility)를 설치해야 함”
-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체통화의 필요성 대두로 국제 통화시스템 불안정 유도
 - 미국 달러는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에는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동 기간 중 미국은 세계 거시경제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
 - 세계 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치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다른 나라들이 달러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미국의 적자를 보전하는 구조가 형성됨
 - 국제 통화체제는 이미 1920년대 파운드-달러 이중 기축통화(pound-dollar duopoly) 체제와 같이 달러-유로화 체제¹¹⁾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SDR의 개인 시장 거래가 증가되면 대체통화로서의 역할 증대 예상
 - 해외자산 중 달러의 비중이 2009년 3월 현재 59.2%로 여전히 크나 유로화 21.4%로 2001년의 달러 64.5%, 유로화 18.1%에 비해 유로 비중 증가

< BIS 보고은행의 해외자산 통화별 구성 추이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미국 달러	61.7	62.8	64.5	61.6	58.5	57.2	60.1	59.0	55.4	58.2	59.2
유로	16.5	16.8	18.1	20.9	23.5	23.5	21.4	21.8	23.0	22.1	21.4
엔	7.8	7.4	5.2	5.0	5.2	5.4	4.5	3.3	3.7	3.8	2.9
파운드	4.5	4.1	4.2	4.2	4.6	5.1	5.1	5.9	7.0	5.5	6.0
스위스 프랑	2.9	2.7	2.6	2.5	2.4	2.2	2.1	2.2	2.2	2.2	2.2
기타	6.6	6.1	5.5	5.7	5.8	6.4	6.8	7.7	8.7	8.3	8.2

자료 : BIS; 주 : 수치는 연도말 기준, 2009년은 3월말 기준.

8)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은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이 국제수지 악화 등으로 긴급자금 필요시 담보 없이 사전에 정한 한도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 권리 혹은 통화를 의미.

9) 2차 G20정상회담(2009년 4월)에서 2,500억 달러 규모의 「특별인출권」을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11월에 투입. 글로벌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서 5%로 증대됨 (Economist, 2009년 10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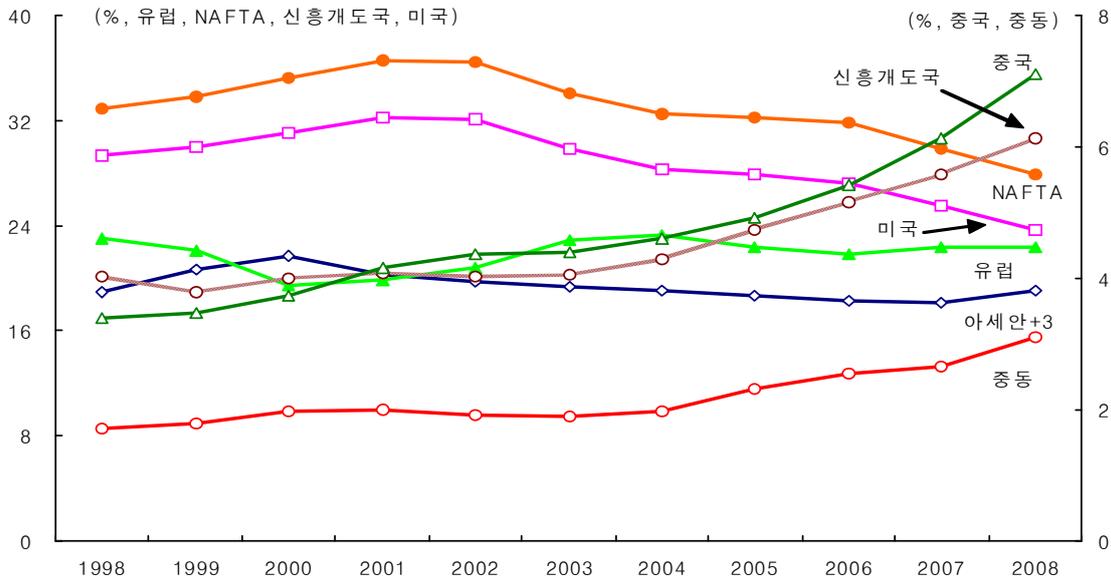
10) Kenen, Peter, "Stabilizing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Journal of Policy Modeling*, Vol. 27, pp. 487-493, 2005. (Eric Helleiner(2008), 재인용).

11) Bergsten, Fred, "The Dollar and the Deficits: How Washington Can Prevent the Next Crisis," *Foreign Affairs*, Volume 88, No, 66, November/December 2009.

○ (경제 위상) 셋째, 주요국 및 지역 간의 세계 경제 위상 변화

- 개별국가의 경제 위상 : 중국의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으며 미국은 상대적으로 위상이 낮아지고 있음
 - 중국의 세계 GDP 비중은 2000년 3.7%에서 2008년 7.1%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2000년 31.0%에서 2008년 23.7%, 2009년 24.9%를 감소 추세를 보임
- 지역별 경제 위상 : 신흥개도국 및 중동 지역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지역의 위상은 하락세를 보임
 - 신흥개도국은 중국 등 경상수지 흑자 지속 국가의 영향으로 세계 GDP 대비 비중이 1998년 20.2%에서 2008년에 30.7%로 증가
 - 아세안+3¹²⁾ 지역도 중국, 일본, 한국 등 경상수지 흑자 지속 국가의 영향으로 세계 GDP 대비 비중이 2006년 18.3%까지 하락하였으나 2008년에 19.0%로 비중이 상승세
 - 북미자유무역협정 지역은 회원국인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지속 등으로 1998년 32.9%에서 2008년 28.0%로 하락

<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세계 GDP 대비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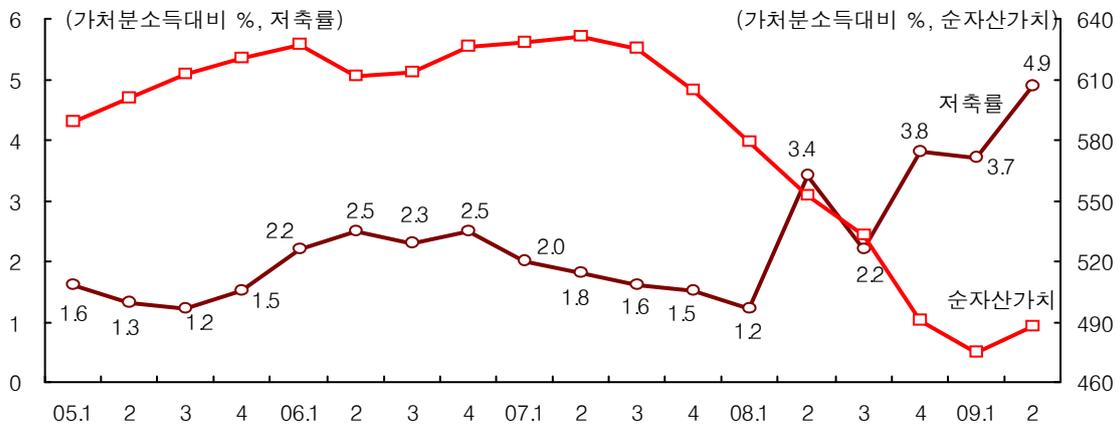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9.

12) '아세안 + 3'의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중국, 일본, 한국 임.

○ (통상) 넷째, 미국 경제 성장이 내수위주¹³⁾에서 수출주도 전환되는 가운데 자국 산업보호와 수출증대를 위해 통상 압력 강화 예상

- 미국 경제는 경상수지 적자 지속 및 절약의 역설¹⁴⁾ 등으로 인한 소비 감소는 내수위주 성장에서 수출주도 성장 전략 가능성 고조
- 세계 경제는 아시아 국가 등 수출 주도 국가의 높은 저축률이 미국의 낮은 저축률 및 높은 소비를 보전하였으나 미국 개인 저축률 지속은 향후 미국 소비자가 더 이상 세계 경제 성장의 주동력으로 작용할 수 없음을 의미
- 경제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실물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는 저축 증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소비감소는 글로벌 임밸런스 조정의 요인으로 작용¹⁵⁾
-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순자산가치는 2009년 2/4분기 현재 487.4%로 위기 이전보다 낮고 부채는 1조 4,295억 달러에 달해 상대적으로 낮은 순자산가치 비율로 인한 불안심리 및 가계부채 조정 등으로 저축률은 상승전망
- 미국 민간소비의 지속적 하락인해 소비에 의존하는 성장이 한계를 보임으로써 수출주도 성장으로 성장 패턴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가계 저축률 및 순자산가치 추이 >



자료 : Reuters.

- 13) 「한국은행, 미국의 수출주도 성장 가능성, 2009년 10월 19일」 참조. 미국의 내수주도의 성장 패턴은 주택가격 상승에 의존한 과도한 가계부채에 의해 이루어져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초래하여 글로벌 임밸런스를 가져온 주된 요인임.
- 14)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이란 개인의 입장에서는 절약을 통해 저축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지만 국가 경제 전체에게는 오히려 소득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케인즈의 이론. 이 역설은 저축이 증가는 반면 투자는 그대로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함. 주로 선진국에서 불경기에 총수요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이 증가하면 오히려 경기 침체가 심화된다는 것임.
- 15) 금융시장의 대출규제강화 등으로 가계 및 기업이 자기 스스로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저축률은 향후에도 상승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수출주도 성장 가능성은 자국의 산업보호와 수출 증대를 위한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클 것으로 전망
- 미국은 경기부양법안에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¹⁶⁾를 포함시킴으로써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였음
-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자국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함

<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 >

구분	주요국	주요 내용
관세 등 무역 장벽	인도	철강제품 관세인상
	남미공동시장	와인, 등 6개 품목의 관세인상
	에콰도르	휴대폰 등 940개 품목에 관세를 인상
	러시아	승용차, 트럭 등에 관세 인상(최고 30%)
	아르헨티나	자동차 부품, TV의 수입 허가제
	유럽연합(EU)	버터 등 유제품에 수출 보조금 지급
	베트남	수입 철강 관세 인상
국내 산업 지원	미국	철강제품의 국내산 사용의무화, 자동차기업에 보조금 지급
	유럽연합(EU)	항공, 철강, 자동차 기업에 융자
	독일	자동차구입자에 보조금지급, 기술개발지원
	프랑스	르노, 푸조에 정부 융자 실시
	캐나다	자동차 산업에 정부의 융자 실시
	중국	상하지 자동차 지원, 자동차세 인하 및 구입보조금 지급
	스웨덴	볼보, 사브에 정부융자 및 채무보증

자료 : 외신종합.

- 미국은 수출증대를 위해 달러가치 하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주요국 통화의 환율변동성 증대로 이어질 전망
- ※ 미국의 환율과 수출 관계 : Cline and Williamson(June 2009)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을 -5.6%에서 -2.8%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달러화의 실질실효환율이 17.4% 절하되어야 함

< 주요국의 수출과 환율 관계 >

	2012년 경상수지 GDP 비중 (%)		실질실효환율 변화율(%)
	기준치	목표치	
미국	-5.6	-2.8	-17.4

자료 : Cline and Williamson, *Estimates of Fundamental Equilibrium Exchange Rate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June 2009.

주 : 실질실효환율 변화율이 플러스(+)면 통화의 평가절하, 마이너스(-)면 평가절상을 의미.

16) '바이아메리카(Buy America) 법안'이란 미국은 경기부양법(2009년 2월 13일)에 정부 지원을 받은 공공사업에는 철강 등 자국산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미.

○ (세계 경제 체제) 다섯째, G20¹⁷⁾ 등 새로운 경제 체제가 서서히 성립

- 글로벌 임밸런스의 조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해 G20을 통한 국제 공조의 필요 증대로 G20체제 형성 가능성도 높은 전망이다
 - 금융 위기로 인한 글로벌 임밸런스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기준으로 세계 경제 GDP의 83% 이상을 대표하는 G20국가의 협력의 필요성 증대
 - G7의 세계 GDP 대비 비중은 2008년에 53.2%로 2003년 64.0%에 비해 10.8%p나 감소, G20은 동기간 중 86.7%에서 83.2%로 3.5%p로 상대적으로 적은 폭으로 감소하여 국제 공조를 위해 G7에 비해 G20 필요성 증대
 - 또한 G20 회원국가에 세계 주요 경상수지 흑자 국가(높은 수준의 외환보유고)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글로벌 임밸런스에 대한 해결 가능성이 높음
 - 국제공조를 통해 경상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글로벌 일밸런스 조정을 위한 20정상회담은 1차, 2차 회담에서는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3차 회의에서 세계 경제 상생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
 - **1차 회담** : 2008년 11월 15일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금융위기 진정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글로벌 일밸런스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음
 - **2차 회담** : 2009년 4월에 런던에서 개최. 세계 경기 부양 지속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 촉진을 위해 보호무역주의 배경, 세계무역 기구(WTO)을 통한 보호무역 정책 감시 등을 통해 세계 무역 규모를 유지하고자 함
 - **3차 회담** : 2009년 9월에 개최. 글로벌 일밸런스 해소를 위해 미국의 국내 소비 수준이 위기 이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요 균형을 재조정(리벨런싱)하여 세계 경제가 상생하자는 논의가 진행됨

< G7 및 G20 대세계 GDP 비중 추이 >

(단위: 억달러,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E)
G7	209,206 (65.6)	216,207 (65.1)	238,612 (64.0)	262,093 (62.4)	273,290 (60.2)	285,370 (58.1)	307,287 (55.6)	323,856 (53.2)	307,920 (53.8)
G20	276,329 (86.6)	287,185 (86.5)	323,278 (86.7)	360,702 (85.9)	385,651 (85.0)	412,542 (84.0)	460,300 (83.3)	506,560 (83.2)	479,542 (83.8)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9.

주 : ()안은 세계 GDP대비 비중.

17) G20 혹은 G20그룹은 기존에 존재하던 G7이 확대 개편된 세계 경제협의 기구임. 회원국은 기존의 G7국가(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유로, 아르헨티나, 호주, 인도네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한국을 포함한 20개국임.

III. 시사점과 과제

○ 시사점

- 세계 주요국 잠재성장률 하락

- 주요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 소득 감소, 소비 위축이 지속되고 있음
- 또한 금융위기의 이후 차입축소, 규제증가 등으로 자본조달 비용이 상승
- 이로 인해 성장의 주요한 요소인 노동과 자본 투입 감소는 주요국의 잠재생산 능력 저하로 인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짐

- 주요국 수출 시장 위축

- 금융 및 실물부문의 보호주의 경향은 한국의 제2의 수출 시장인 미국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큼
- 반면, 전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집중됨으로써 중국내 세계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음

- 다극화된 통화시스템으로 외환시장의 불안 증대 가능성 고조

- 달러 의존도가 높은 국내 외환거래 시장에서 달러 거래가 축소됨에 따라 미국 경제 불안에 따른 달러의 영향력이 작아질 것임
- 그러나, 결제통화 다변화로 인해 외환시장 불안의 빈도수는 잦아질 수 있음

○ 대응 과제

- (내수와 외수의 비율 조정 필요) 수출주도의 경제 성장 모델에서 내수산업의 비중 확대를 통해 내수와 수출 등 외수 부문의 최적 비율을 찾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 국내 경제의 높은 대외 의존도로 인해 외수 경기가 급변으로 인해 국내 경기가 큰 변동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내수와 외수의 균형 성장 전략을 통해 세계 경기 변동에도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동북아 협력 강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중국과 일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동북아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금융 규제를 국가 단위를 넘어 지역 블록 차원으로 확대
 - 지역통화의 결제 비율을 높이고 지역 차원의 금융·투자 전략 및 상품을 증대시켜 지역내 금융시장의 규모를 확대
 -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3국의 통화를 기초로 하여 3국간 무역 거래시 결제 가능한 단일 통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국내 잠재성장률 제고 정책 지속) 국내 경제도 잠재성장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이 지속 추진되어야 함¹⁸⁾
 - 경제 위기로 인한 투자부진, 구조적 실업 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당분간 확장적 기조 유지 등 조기 회복을 위해 노력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고용확대, 규제완화 등을 통한 투자·창업활성화, 서비스업 선진화, R&D 및 신성장동력 확충 등 추진 지속

- (달러가치 변동으로 인한 문제점 보완 노력) 환율 하락으로 인한 문제점을 완화하도록, 정부의 과도한 하락 방지를 위한 미세 조정, 비가격 경쟁력 제고, 환변동보험제도 활용 등의 노력이 필요
 - 달러가치 하락으로 인한 원화 환율의 급속한 하락은 수출 경쟁력 약화, 기업 채산성 악화, 환차손 리스크 증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
 - 최근과 같이 환율이 하락할 경우, 정책 당국은 미세 조정(Smoothing Operation)을 통해 원/달러 환율의 급락에 대한 심리를 해소
 - 기업들은 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증대를 통해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인 제품 생산을 확대해야 함
 - 환변동보험제도 등을 활성화해 환율 하락으로 인한 환차손의 리스크를 줄이도록 노력

임희정 연구위원(3669-4031, limhj9@hri.co.kr)

18) 「기획재정부, “위기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여부”, 2009년 7월 15일」 참조.

주요 국내의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7 년	2008 년	2008년				2009년			2009 (E)
			1/4	2/4	3/4	4/4	1/4	2/4	3/4	
미국	2.1	0.4	-0.7	1.5	-2.7	-5.4	-6.4	-0.7	3.5	-2.7
EU	2.7	0.7	0.7	-0.3	-0.4	-1.8	-2.5	-0.2	0.4	-4.2
일본	2.3	-0.7	4.0	-2.9	-6.5	-11.5	-12.2	2.7	4.8	-5.4
중국	13.0	9.0	10.6	10.1	9.0	6.8	6.1	7.9	8.9	8.5
한국	5.1	2.2	5.5	4.3	3.1	-3.4	-4.2	-2.2	0.6	-1.0

주 1) : 2008년, 2009년 2/4분기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09년 전망치(E)는 IMF 2009년 10월 기준임.

2) :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구분	2008년 말	2009년					전주비
			3월말	6월말	9월말	11월 20일	11월 27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2.66	3.54	3.30	3.37	3.27	-0.10%p
	엔/달러	90.80	98.98	96.33	89.91	88.88	86.35	-2.53%
	달러/유로	1.3992	1.3244	1.4039	1.4646	1.4857	1.5003	0.0146\$
	다우존스지수	8,776	7,609	8,447	9,712	10,318	10,464	146p
	닛케이지수	8,860	8,110	9,958	10,133	9,549	9,383	-166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3.94	4.16	4.39	4.26	4.08	-0.18%p
	원/달러	1,259.5	1,383.5	1,273.9	1,178.1	1,159.0	1,175.5	16.5원
	코스피지수	1,124.5	1,206.3	1,390.1	1,673.1	1,620.6	1,524.5	-96.1p

주 : 11월 27일 해외 지표는 전일(11월 26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구분	2008년 말	2009년					전주비
			3월말	6월말	9월말	11월 20일	11월 27일	
국제 유가	WTI	44.61	49.65	69.08	70.28	76.67	76.42	-0.25\$
	Dubai	36.45	46.80	71.85	65.33	77.59	77.59	0.00\$
CRB선물지수		229.54	220.40	249.96	259.39	274.58	278.41	3.83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